



### 是門 是:이시 門:문문

시(使)으로 일본(日本)에 간 김성일(金誠一)

**당시** 일본은 통신수길이라는 사람이 대판성에서 나라를 다스리며 군사력을 키우고 있었다

大版城

은것을 안겼을 밤이라,

是門 是門

是門(?)이란 (是+門+子人) 일본 하인이 드나드는 문이란다

대판성에 당도한 우리시인 김성일과 황윤길은 통신수길을 만나러 갔다

안녕하십니까!

여이아! 여이아!

김씨! 김씨의 동태를 잘 일어나가 잘 보고 오세요

가쁘다

이집으로 드시지요

그대는 안들어 간다고 전하라! 무례 하도다

뜨끔! 뜨끔! 통신수길! 전신선이야! 무슨 새가 잡아먹은 거냐!

이집으로 드시지요

**是門(시문)**  
「일본 하인이 드나드는 문」이라는 뜻

**是 (4글)** **門 (8글)**

조선 선조 때 통신과 서인으로 당파가 갈렸다. 통신은 여당이고, 서인은 야당이였다. 일본의 명동이 신상지 않아 통신에서는 김성일을, 서인에서는 황윤길을 사신으로 보냈다. 김성일은 도쿄로 떠났는데 요시(德尾秀吉)의 책무와 위모가 취와 음식하여 조선에 도착 못했. 김성일은 일본의 장막을 예견했다. 조정에서는 두 사신이 상반된 의견을 보이자 결국 김성일의 손을 들어주어 장막에 대비를 하지 못하여 결국 1592년에 임진왜란을 겪었다. 당시 사신으로 간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은 사문(使門)으로 쓰는 들어가지 않았다. (是:시+門:문)

是	이	시	是	是
門	문	문	門	門

내가 인터넷 공간에서 마음껏 거야

내가만 못하게 했냐?

대견어? 대견어?

자신의 이겨 주장

저, 어저서 누굴치고 나리래

엄마야!

‘조’과 ‘관’ 들어가서 별로 좋으려. 어마

대견조

인리

가만하면 사회현상 필요

나. 거거리... 일처음이 또 달라졌음.

### 틴틴한자

**必要**  
필요 :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함  
※ 활용남말 : 必要(필수), 必讀(필독), 必要(요구), 重要(요망)

**必** 반드시  
부수: 心(마음), 刀(칼)  
총획: 5획

**要** 요건할  
부수: 西(말), 月(달)  
총획: 9획

必 必 必 必 必

要 要 要 要 要

\* 일상생활이나 국어 교과서 등에서 권리와 학문(學問)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한자(漢字) 공부는 절대적으로 必要하다.